

잃어버린 30억년을 찾아서 용어집



4주차

학습에 필요한 용어를
정리한 용어집입니다.

4주차 용어집

4-1. 유럽과 미국의 공통발굴 및 연구 역사 (1) 최초 공통화석의 발견

유네스코

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이며 인류가 보존 보호해야할 문화, 자연유산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지질학

지각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자연과학의 한 분야로 지각의 조성·성질·구조·역사·성인 등을 다룬다. 지질학의 특징은 다채로운 분과와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과학적 성격이 짙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왕진

의사가 병원 밖의 환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진료함.

4-1. 유럽과 미국의 공통발굴 및 연구 역사 (2) 초기의 공통 연구자들-오언

리네임

이름을 다시 짓다

후학

앞날에 도움이 될 학문이나 지식

4-1. 유럽과 미국의 공통발굴 및 연구 역사 (3) 초기의 공통 연구자들-메리 애닝

플레시오사우루스 (Plesiosaurus)

‘파충류에 가깝다’라는 뜻으로 수장룡의 대표격이다. 목이 뱀처럼 길고 부드러워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었고, 입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나 있다. 몸통과 지느러미는 바다거북을 닮아 헤엄치기에 알맞았다. 헤엄을 칠 때는 노처럼 생긴 지느러미를 앞뒤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지금의 바다거북처럼 날갯짓을 하듯이 위아래로 힘차게 움직였다. 지느러미와 연결된 몸의 근육이 아주 튼튼하고 강하다. 뼈의 구조는 파충류와 비슷하지만, 허리뼈의 구조상 육지보다 바다 생활에 더 알맞게 진화한 것으로 보인다. 허파는 등 쪽에 있고 몸 아래쪽에 작은 돌이 있는데, 무게 중심을 밑으로 향하기 위해서였다. 먹이는 물고기, 원시 오징어 등이다.

시사점

미리 알려 주는 암시

4-2. 남극에서 북극까지 (1) 남미에서 남극까지

아르헨티노사우루스 (Argentinosaurus)

키는 20m, 심장의 크기는 73.8cm이다. 몸집이 매우 크고, 초식성이므로 ‘거대공룡’이라 불리고 있다. 얼굴이 매우 두꺼우며 두개골의 두께가 18cm라고 한다. 하지만 머리를 쓸 일이 없어 조금은 단점이 있다. 꼬리의 길이는 4m이고 다리의 두께는 무려 140cm라고 한다. 뼈는 매우 굵고 힘이 세며, 철쭉 같은 풀은 기본이고, 심지어 야자수 나무까지 꿀꺽 삼켜버린다. 이빨을 등그렁고 풀을 잘 씹어먹게 되어있다.

기가노토사우루스 (Giganotosaurus)

1993년 아르헨티나에서 몇 조각의 골격 화석이 처음 발견되었다. **백악기** 전체에 걸쳐서 생존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육식 공룡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있는 티라노사우루스(Tyrannosaurus)보다 더 큰 몸집을 가졌다고 여겨진다. 기가노토사우루스(Giganotosaurus)라는 이름은 '거대한 남쪽의 도마뱀' 이란 뜻이다.

세이즈모(Seismo)

고대 그리스어 σεισμός (seismós , " 지진)

크리올로포사우루스 (Cryolophosaurus ellioti)

쥐라기 초에 남극 대륙에서 살았던 수각류의 육식공룡. 키는 8m, 몸무게는 7톤이다. 크지만 날씬하고 잘빠진 몸매이고 빨라서 사냥을 잘한다. ‘찬 벗 도마뱀’이란 뜻으로 머리꼭대기에 화려한 벗이 있다.

4-2. 남극에서 북극까지 (2) 북반구에서 북극까지

용각류 (Sauropoda)

쥐라기에서 백악기에 번성한 파충류 용반목 용각아목에 속하는 초식 또는 잡식성 공룡 무리이다. 몸길이 20~25m의 아파토사우루스, 27m의 디플로도쿠스, 25m의 브라키오사우루스 등이 있는데, 체격이 크고 목과 꼬리가 길다.

프시타코사우루스 (Psittacosaurus)

1923년에 발견되었으며, ‘앵무새 도마뱀’이란 뜻으로 입이 앵무새 부리처럼 날카롭고 이빨이 없다. 각룡류이지만 트리케라톱스와 같은 전형적인 각룡류의 특징인 프릴이나 뿔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룡류의 특징인 주둥이 뼈가 발달해 각룡류의 조상으로 여겨진다. 앞다리는 뒷다리보다 짧지만 네 발로 걸었으며, 육식 공룡을 피해 달아날 때는 무척 빨랐다. 성격은 온순했고 무리 지어 생활하면서 새의 부리를 닮은 입으로 나뭇잎, 구과류(열매) 등을 먹었다. 입이 튼튼하고 날카로워 나무 뿌리나 줄기 등 질긴 것도 잘 먹었다.

4-2. 남극에서 북극까지 (3) 중국 랴오닝과 아시아공룡

딜롱 (Dilong)

중국에서 발견된 원시적인 티라노사우루스와 공룡이다. 백악기 초기에 살았건 것으로 보이며 딜롱(Dilong)이란 이름은 '황제공룡'이란 뜻이다. 골격 화석 발견 당시 꼬리와 턱 부분에 깃털이 있었는데 체온 유지를 위한 보온용으로 사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새끼의 경우 깃털로 체온유지를 하다가 자라면서 깃털이 빠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깃털 달린 수각류 중 하나이다. 네모난 주둥이에 강력한 턱과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먹이를 사냥한 걸로 보인다. 모식종은 딜롱 파라독수스(Dilong paradoxus)이다.

콘푸시우스르니스(Confuciusornis)

공자새(孔子鳥, Confuciusornis)는 또는 성현공자조(聖賢孔子鳥, sacred Confucius Bird)는 까마귀 정도 크기의 원시조류로 중국에서 화석이 발견되었으며 백악기 초기 약 1억2500만년~1억2000만년전에 살았다. 현대 새처럼 이빨이 없는 각질의 부리를 가지고 있었다.